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 론

하 명 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오늘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에 앞서 저는 모든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전제 조건이 맞는 것 인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문화로 전환이 급격하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대형사업자가 부당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고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드리우는 부분은 국내 온라인시장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해주신 정혜련 교수님과 이승민 교수님의 의견 중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본 부분은 ‘시장 내 플레이어들의 민간차원의 자율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규제당국이 해결방법으로 법제정을 통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흐름을 깨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협회 또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규제당국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국내 온라인시장의 발전과 균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정혜련 교수님 발제 내용 중 ‘EU의 행동규약제도’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한 예로 우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공정위와 협의하에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방지와 안정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규정을 통해 시장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으로 11년간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 운영으로 저는 국내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공정화를 위한 부분이 아닌 사업자 간의 공정화를 위한 부분으로 우리 자율준수협의회 운영과 같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장정화활동 참여 독려를 통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로 정부가 고민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내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규모 셀러들이 쉽게 저비용으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되는 발판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대형 오프라인 중심의 제한적인 상거래 시장을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접점을 만들어 줌으로서 판매부진이나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회생의 공간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한 동반성장 및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생발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